바른답
알찬풀이

1 / 독서와 연극

Ⅰ 갈등이 드러난 소설 읽기 (하늘은 맑건만)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6~8

핵심개념 1 심리, 대립 / 긴장감, 주제, 현실감
핵심개념 2 시작, 최고조, 결말
핵심개념 3 마음 / 인물, 사회, 자연, 운명
핵심개념 4 겁 / 적극적, 대범
핵심개념 5 거스름돈 / 내적, 심화 / 외적, 행동 / 고백
핵심개념 6 거스름돈 / 기쁨 / 꾸중, 부끄러움 / 후련함 / 절망감 / 붓장, 죄책감 / 점순이 / 고백, 후련
핵심개념 7 푸름 / 컴컴 / 죄책감, 정직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9~15

01 ② 02 ② 03 ① 04 ② 05 작은어머니가 문기에게 준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 문기가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06 ② 07 ⑤ 08 ⑤ 09 ④ 10 삼촌에게 거짓말한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11 ④ 12 ② 13 ④ 14 ① 15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한 것 16 ② 17 ④ 18 ② 19 ④ 20 ② 21 ⑤ 22 ④ 23 ① 24 ② 25 ① 26 ③ 27 ③ 28 ②

01 (가)는 숨겨 둔 물건이 없어져 초조함을 느끼는 문기의 현재 모습이고, (나)는 '며칠 전 일이다'에서 알 수 있듯, 과거 회상에 해당한다. 〈하늘은 맑건만〉은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역순행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구조의 글은 '액자식 구성'에 해당한다.

02 (가)에서 문기는 공과 쌍안경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놀라고 있으며, 이 일로 숙모나 작은아버지께 혼이 날까봐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공을 동네 아이들이 집어 갔을 것이라는 생각은 문기의 추측일 뿐이다.

03 '㉡ 지전, ㉢ 둥구미, ㉣ 은전, ㉤ 일 원'은 모두 현재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소재들로,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반면 ㉠ '쌍안경'은 '두 개의 망원경 광축을 나란히 붙여, 두 눈으로 동시에 먼 거리의 물체를 확대하여 쉽게 바라볼 수 있게 한 광학 기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니다.

04 문기가 거스름돈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숙모가 준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기는 집으로 돌아가 숙모에게 물어봄으로써 고깃간 주인이 제대로 거스름돈을 준 것인지, 아니면 잘못 거슬러 준 것인지를 알고자 한 것이다.

05 수만이는 문기가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이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 문기에게 먼저 잔돈만 작은어머니에게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06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사용하자는 수만의 제안에 문기는 머뭇거리며 ㉮와 같이 말하고 있으므로 겁이 많고 소심하며 소극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07 (라)에서 '문기'는 '수만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자기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수만이'는 '문기'가 만든 돈이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기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떠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08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마치 전지전능한 신처럼 인물 내면의 심리까지 서술한다. ① 1인칭 주인공 시점, ② 1인칭 관찰자 시점, ④ 3인칭 관찰자 시점

09 문기는 공과 쌍안경이 없어진 것을 알고 삼촌에게 들키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그 사실이 들통나 야단맞을 것이 두려워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것이다.

10 문기는 자신을 믿어 주는 삼촌께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11 삼촌은 문기에게 성실치 못한 친구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이들과 어울리다 나쁜 길에 빠지면 안 된다고 훈계하고 있다.

12 (가)~(다)는 사건이 시작되면서, 인물 간의 갈등이 구체화되는 '전개' 부분에 해당한다.

13 (다)에서 문기는 삼촌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이미 나쁜 데 빠져 버린 것이라 생각하며, 양심을 속인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14 문기는 삼촌의 꾸중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이다.

16 수만이 문기를 기다린 일은 해소된 줄 알았던 문기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계기가 된다.

17 (나)에서 '문기'는 남은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진 돈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수만이'는 그런 '문기'의 말을 믿지 않고 함께 환등 틀을 사기로 했던 약속을 실행해야 한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서로 갈등하고 있다.

18 수만이는 학교에서 문기를 계속 마주칠 것이므로, ㉯처럼 말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수만이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문기를 계속 괴롭힐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19 (다), (라)에서 문기가 수만이의 괴롭힘을 참고 있는 이유는 학교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소문이 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20 수만이는 문기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하루 종일 문기를 괴롭히고 있다. 이를 통해 수만이가 끈질기고 집요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21 (가)를 보면, 숙모가 직접 점순이네 주인집에 가서 무슨 말은 한 것은 아니지만,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그 집까지 들어갔다고 하였다.

22 (라)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문기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부분으로, '절정'에 해당한다.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절정'에서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제공된다.

23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는 속담은 말이란 순식간에 멀리까지 퍼져 나가므로, 조심하라는 뜻이므로 ⓐ와 가장 관련이 있다.

24 ㉡은 수신 시간에 선생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서술로, 문기의 심리 상태가 드러나지 않는다.

25 이 소설은 부정직하게 얻은 돈으로 인한 갈등과 그 극복 과정을 통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26 문기의 고백을 들은 삼촌은 잘못된 행동을 충고해 주고 문기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 점을 인정해 주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27 문기는 허물을 벗겨 내듯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죄책감이나 죄의식의 '마음속의 어둠'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28 소설의 갈등은 사건을 전개하고 인물의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갈등의 진행 과정을 파악하며 읽으면 소설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2 갈등을 연극으로 표현하기 (토끼와 자라)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16~18

핵심개념 1 실마리, 해결 , 해소
핵심개념 2 간, 토끼 / 전개 / 거짓말 / 하강 / 산속, 걱정
핵심개념 3 용왕, 목숨, 목숨, 용왕 / 토끼, 간, 외적, 해소
핵심개념 4 화, 이익 / 침착, 우직, 순진 / 급, 침착, 능청
핵심개념 5 실망 / 위기 / 침착, 과장
핵심개념 6 죽임, 약 / 조롱, 좌절 / 용궁, 육지
핵심개념 7 주제 / 줄거리 / 낭독 / 연습 / 공연
핵심개념 8 과정 / 기록, 이야기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19~23

01 ③ **02** ② **03** ④ **04** ①, ⑤ **05** ④ **06** 토끼의 간 **07** ③ **08** ③ **09** 칠판에 '토끼가 사는 산속' 그림을 그려 붙인다. **10** ②, ③ **11** ⑤ **12** ⑤ **13** ⑤ **14** 간을 산속 깊은 골짜기에 두고 왔다. **15** ② **16** ① **17** ④ **18** ③ **19** ②, ③ **20** ④

01 이 글에 과거의 사건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나)에서 속담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를 활용하여 말하고 있으나, 이는 상대를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기 위한 것이다.

03 ㉣에서 도루묵은 용왕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뿌듯한 표정으로 여유롭게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서 도루묵은 당황한 표정으로 빠르게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04 희곡의 주요 구성 요소는 '대사, 해설, 지문(지시문)'으로, [A]는 이 중 '지문(지시문)'에 해당한다. 희곡에서는 지시문을 통해 작품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거나 인물의 동작, 표정, 심리, 말투 따위를 지시한다.

05 꼴뚜기가 용왕에게 약초보다는 어패류가 낫다고 말하기 전까지 용왕은 꼴뚜기는 물론 어떤 신하 물고기도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06 자라는 용왕에게 토끼의 간을 꺼내 드시면 만병이 다 낫는다며 묘수로 토끼의 간을 제시하고 있다.

07 연극 대본을 만들 때 줄거리와 등장인물 등 기본 설정을 소설과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극적인 재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성 있게 창의적으로 각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08 내용과 관련 있는 음악을 통해 용궁에서 육지로 장면이 전환됨을 보여 준다.

09 교실이라는 공간의 제약이 있으므로 바뀐 장소의 모습을 그림으로 미리 준비하여 장소가 바뀔 때 칠판에 붙여 나타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10 자라는 토끼를 속이기 위해 용궁이 매우 아름답고 즐거운 곳인 것처럼 장점을 과장되게 열거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 토끼가 옷이 젖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용궁에 가기를 주저하자 이를 명쾌하게 해결해 주고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가고 있다.

11 토끼는 자라를 보자마자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자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냐며 성급하게 판단하고 앞서나가는 경향이 있으며, 털에 물을 묻히기가 싫어서 용궁에 가는 것을 망설일 만큼 외모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 (나)에서 토끼는 자신이 죽을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떨리는 속마음을 숨기고 최대한 침착한 태도를 보이며 꾀를 내고 있다.

13 간을 얻고자 토끼를 죽이려는 용궁 인물들과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는 토끼 사이의 외적 갈등을 (나)의 주요 갈등으로 볼 수 있다.

14 '토끼'는 '용왕'에게 원래 토끼들은 맹수들을 피해 낮에는 간을 꺼내 산속 깊은 골짜기에 숨겨 두고 밤에만 배 안에 집어넣고 산다고 거짓말을 한다.

15 용왕과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토끼는 과장된 모습으로 엄살을 떨며 말해야 한다.

16 토끼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황하지 않고 꾀를 내고 있으므로 매우 침착하고 영리한 인물이다.

17 (가)에서는 간을 두고 왔다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용궁을 벗어나게 된 토끼의 기쁜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 토끼에게 속고 있는 자라의 모습을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재미있게 보여 주고 있다.

18 (가)와 (나)는 각각 희곡 〈토끼와 자라〉의 '하강'과 '대단원' 단계에 해당한다. '대단원'에서는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된다.

19 ㉠'자라 노래'는 토끼에게 속았음을 깨달은 자라가 부르는 노래이므로 당황하고 허탈한 느낌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고, ㉡'토끼 노래'는 무사히 위기를 넘기고 육지로 돌아온 토끼가 부르는 노래이므로 얄미우면서도 신나게 노래하는 것이 적절하다.

20 연극에서는 비중이 작은 배역도 연극의 재미와 감동을 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각종 효과를 맡은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대단원 최종실전 1회

pp. 24~29

01 ④ **02** ③ **03** ① **04** 온갖 가지고 싶고, 해 보고 싶은 가지가지를 한번 모조리 돈으로 바꾸어 보는 것 **05** ④ **06** ③ **07** 문기는 남은 돈을 고깃간 주인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만이는 이를 믿지 않고 문기에게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갈등하고 있다. **08** ⑤ **09** ③ **10** 도적질 **11** ② **12** ④ **13** ③ **14** ② **15** 첫째는 고깃간 주인이 일 원을 십 원으로 알고 거슬러 준 돈을 써 버린 것이고, 둘째는 붓장 안의 돈을 자기가 훔쳐 낸 것이다. **16** ⑤ **17** ② **18** ② **19** 용왕이 신하들에게 자신의 병을 낫게 할 묘수를 말하라고 다그쳤기 때문이다. **20** ④ **21** ④ **22** 용궁의 신하들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23** ① **24** ⑤ **25** ④ **26** ③ **27** ⑤ **28** 용궁에서 육지로 공간이 이동하면서, 자라는 약자로 전락하였고 토끼는 강자가 되어 자라를 놀리고 있다. **29** ② **30** ②

01 (가)에서는 주인공 문기가 고깃간 주인의 착각으로 거스름돈을 잘못 받고 있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즉, (가)는 인물이 소개되고, 갈등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발단' 부분이다.

02 고깃간 주인은 문기에게 일 원을 받은 후, 거스름돈을 더 많이 주는 실수를 했지만 손님이 몰려 정신이 없던 탓에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03 문기는 남은 거스름돈을 쓰자는 수만이의 말에 "돈을 쓰면 어떻게 되니?"라며 머뭇거리고 소심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수만이는 "염려 없어. 나 하는 대로만 해."라며 겁이 없고 대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04 수만이는 문기에게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가지고 사고 싶었던 것을 다 가져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다)의 내용을 인용하여 '~것'과 같은 형식으로 썼을 때	4
(다)의 내용을 인용했지만, '~것'과 같은 형식으로 쓰지 않았을 때	2

05 문기와 수만이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거스름돈을 함께 쓰기로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나타내는 한자 성어는 '마음이나 뜻이 서로 맞음.'이라는 의미를 지닌 '의기투합(意氣投合)'이 가장 적절하다.

06 글을 읽을 때 참고 자료를 찾아 읽으면 배경지식을 넓힐 수 있고, 글의 내용을 좀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어 독서에 자신감을 얻게 된다. 그러나 1930년대 돈의 가치를 안다고 해서 문기를 둘러싼 인물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7

채점 기준	배점
(가)에서 드러나는 갈등을 문기의 상황과 수만이의 요구를 모두 포함하여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을 때	4
(가)에서 드러나는 갈등을 문기의 상황과 수만이의 요구 중 하나만을 포함하여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을 때	2

08 (가)에서 문기는 수만이가 환등 틀을 사자고 할 때 "난 싫다."라며 단호하게 말하고 있으며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나), (다)에서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다 말해 버리겠다는 수만이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숙모의 돈을 훔쳐 수만이에게 가져다주고 있다.

09 (나)에서 서술자는 수만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데, 독자는 이를 통해 수만이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10 문기는 고깃간 주인이 잘못 내어 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자신의 행동이 도적질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수만이는 이러한 문기의 심리를 알고

'도적질'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며 문기를 괴롭히고 있다.

11 문기는 돈이 없다는 말을 믿지 않고 계속 돈을 줄 것을 요구하는 수만이 때문에 결국 숙모의 돈을 훔치게 된다. 훔친 돈을 수만이에게 줄 때에는 자신을 괴롭히는 수만이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싫었기 때문에 뺨을 때리듯 돈을 던져 주었을 것이다.

12 문기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일 뿐, 친구들이 자신만 빼놓고 재미있게 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13 (가), (나)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털어내고 정직해지고 싶어 하는 마음과 비난과 질책이 두려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마음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14 (다)에서 문기는 스스로 작은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털어놓음으로써 마음의 짐을 벗고 모든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15

채점 기준	배점
(다)의 내용을 인용하여 문기의 허물 두 가지를 제시된 문장 형식을 지켜 썼을 때	3
(다)의 내용을 인용하여 문기의 허물 두 가지를 밝혀 적었으나, 제시된 문장 형식을 지켜 쓰지 않았을 때	1

16 희곡은 순수하게 창작되는 경우도 있고, 원작을 각색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반드시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창의성을 발휘하여 개성 있게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17 용왕은 물속에 있는 온갖 약초를 다 먹어 보았지만, 아직도 병이 낫지 않는다며 신하들에게 화를 내고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야단치며'가 가장 적절하다.

18 용왕은 신하들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묘약을 가져 오라고 다그치고 있으며, 몸에 좋다면 신하들도 잡아먹으려 할 만큼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

채점 기준	배점
이 글에 나타나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용왕'과 '신하들'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을 때	4
'용왕'과 '신하들'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였지만,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쓰지 않았을 때	2

20 용왕이 토끼를 육지로 보내 준 것은 토끼를 배려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병을 치료하려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다.

21 ㉠에서 토끼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깨닫고, 태도를 정중하게 바꾸고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에서는 고등어를 위협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상과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태도를 연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22 토끼의 간을 빼앗고자 하는 용궁의 신하들이 토끼를 붙잡고 있다.

23 뱀장어가 용왕을 말리는 상황이므로 다급하게 말하는 것이 어울린다.

24 ㉢의 상황으로 볼 때, 뱀장어는 토끼의 말을 믿지 않고 있으므로 어떻게든 토끼가 육지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과장되고 급박하게 행동하며 큰 소리를 치면서 대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25 토끼가 간을 꺼내 놓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므로, ㉣은 자라를 떼놓기 위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26 연극이 마무리된다는 것은 연극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대단원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이다. 뒤에 갈등의 해소를 보여 주는 이야기가 남아 있으므로 배경이나 소품을 미리 치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7 자라는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고 당황스러움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시원섭섭함은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풀리어 흐뭇하고 가뿐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므로, (나)에서 추측할 수 있는 자라의 심리로 적절하지 않다.

28

채점 기준	배점
용궁에서 육지로 공간이 이동되며 역전된 '토끼'와 '자라'의 관계를 '강자'와 '약자'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썼을 때	4
용궁에서 육지로 공간이 이동되며 역전된 '토끼'와 '자라'의 관계를 '강자'와 '약자'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쓰지 못했을 때	2

29 용왕과 그 신하들이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토끼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토끼의 꾀에 당하고 있다.

30 어색하거나 어려운 부분을 쉽고 재미있게 고치는 것은 대본을 낭독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대단원 최종실전 2회

pp. 30~36

01 ④ **02** ② **03** ③ **04** ① **05** ④ **06** 남은 돈을 돌려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주인에게 직접 돈을 전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07** ③ **08** ② **09** 도적질 **10** ⑤ **11** ⑤ **12** 문기의 내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13** ③ **14** ② **15** 맑은 하늘 **16** ③ **17** ④ **18** ② **19** ⑤ **20** ③ **21** 칠판에 '토끼가 사는 산속' 그림을 그려 붙인다. **22** ③ **23** 자라는 온갖 감언이설로 용궁을 설명하며 토끼를 유혹하였다. **24** ⑤ **25** ③ **26** ① **27** ⑤

28 도루묵 **29** Ⓐ 용왕은 간을 얻기 위해 토끼를 죽이려 하고, 토끼는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꾀를 내고 있으므로 용왕과 토끼는 적대적인 관계이다. / Ⓑ 자라는 용왕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가지러 가는 등 충성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용왕과 자라는 우호적인 관계이다. **30** ② **31** 토끼님 **32** ②, ③

01 이 글은 소설로, 실제로 있음직한 일을 상상하여 꾸며 쓴 것이다.

02 문기는 잘못 받은 거스름돈에 대해 삼촌과 숙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만이의 꾐에 넘어가 거스름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잘못을 했다.

03 고깃간에 심부름을 갔던 문기가 거스름돈을 잘못 받음으로써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04 문기는 (가)에서 고깃간 주인을 의심스레 쳐다보았으며, (나)에서 수만이와 대화를 나누며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다)에서는 삼촌에게 꾸중을 듣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라)에서는 잘못 받은 거스름돈으로 산 쌍안경과 공을 버리고 남은 돈을 주인에게 돌려준 후 후련함을 느끼고 있다.

05 (다)에서는 삼촌의 훈계를 들은 후, 삼촌을 속인 일과 돈을 써 버린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문기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내적 갈등이라 볼 수 있다.

06 문기는 삼촌에게 꾸중을 들은 후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껴 공과 쌍안경을 버리고 돈을 돌려주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평가하여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을 때	4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중 한 가지만을 평가하여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을 때	2

07 수만이는 문기가 돈을 혼자 쓰기 위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받아내기 위해 문기를 괴롭히고 있다.

08 수만이는 문기가 도둑질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릴 것이라고 계속 협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선생님께 이르지는 않았다.

09 수만이는 문기가 도적질했다고 써 놓겠다며 협박하고 있는데 '도적질'은 문기의 양심을 가장 괴롭게 하는 말이다.

10 갈등과 시간적·공간적 배경의 효과적인 제시는 관련이 없다.

11 문기가 담임 선생님에게 자백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을 부드럽게 대해 주시는 담임 선생님의 모습에 말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12

채점 기준	배점
'점순이'의 역할을 '갈등'과 관련지어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을 때	4
'점순이'의 역할을 '갈등'과 관련지었으나,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쓰지 않았을 때	2

13 숙모는 문기에게 묻자마자 스스로 답을 내린 것으로 보아 이미 범인이 점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4 ⓑ에 언급된 울음소리는 심부름하던 집에서 쫓겨난 점순이의 울음소리이므로, ⓑ에는 문기의 심리가 드러나 있지 않다.

15 (나)에서 문기의 마음은 죄책감과 괴로움으로 인해 어둠과 같이 컴컴하고 무겁다. 이러한 문기의 마음은 맑은 하늘과 대조되어 더욱 부각되고 있다.

16 문기는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고백한 후 몸을 감싸고 있던 허물이 벗어지고, 마음속의 어둠도 차차 사라지며 맑아지는 것을 깨닫고 있다. 즉, '마음속의 어둠'과 같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17 이 글의 글쓴이는 문기가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겪었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양심을 지키는 정직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하였다.

18 한 장르가 어떤 특정 장르로 각색되어야 한다는 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 소설도 연극 외에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으로 다양하게 각색될 수 있다.

19 연극 공연은 관객과 함께 하는 활동이므로, 배우들의 표정이나 움직임을 관객들이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하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말을 할 때는 용왕이 아니라 관객 쪽으로 돌아서서 말해야 얼굴도 잘 보이고, 대사도 또렷하게 들린다.

20 (가)에서는 용왕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신하들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즉,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신하들은 외적 갈등을 겪고 있다.

21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극임을 고려하여 그림을 칠판에 붙여 배경을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채점 기준	배점
연극이 상연되는 공간을 고려하여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을 때	4
연극이 상연되는 공간을 고려하여 쓰지 않았을 때	1

22 용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공간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사실을 주로 다루는 과학 잡지를 찾아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3 (나)에서 자라는 용궁이란 아름다움과 부가 넘쳐나는 곳이라고 설명하며 토끼를 꾀어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자라가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가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한자 성어(감언이설)를 활용하여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을 때	4
자라가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가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으나, 한자 성어(감언이설)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	2

24 토끼는 자신을 찾아 온 자라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뻔하다 뻔해.", "나, 토끼님을 찾는 거 아녜요?", "나하고 달리기하자고 왔지요?" 등 자신이 짐작하는 바를 성급하게 말하고 있다.

25 이 글과 같은 희곡은 무대에서 연극을 상연하는 목적으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무대라는 공간 안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하므로 등장인물 수, 시간적·공간적 배경 등에 제약이 따른다.

26 (가)~(다)는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토끼가 간을 두고 왔다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절정' 부분이며, (라)는 자라와 함께 용궁을 빠져나온 토끼가 자라를 놀리며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대단원' 부분이다. 즉, (가)와 (나)에서 갈등이 최고로 고조되었다가, (다)를 기점으로 갈등이 서서히 완화되고, (라)에서 토끼가 위기에서 벗어남으로써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다.

27 간이 지금 배 속에 없다는 토끼의 말은 육지로 돌아가기 위한 거짓말일 뿐, 약효가 좋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28 도루묵은 이왕 잡아온 토끼를 놓치기는 아깝고 설사 간이 없다 하더라도 다시 다른 토끼를 잡아 오면 된다고 하면서 용왕을 설득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29

채점 기준	배점
제시된 인물들의 관계를 〈조건〉에 맞게 썼을 때	4
제시된 인물들의 관계를 〈조건〉에 맞게 쓰지 않았을 때	2

30 토끼는 지난번에 자라가 자신을 속여서 용궁으로 데리고 갔으니, 이번에는 자신이 자라를 속여 육지로 왔다는 의미로 '이번엔 네 차례'라고 말한 것이다.

31 육지로 돌아온 토끼는 스스로 '토끼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며 자라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2 ①은 관객이 연극을 감상할 때 유의할 점이고, ④, ⑤는 연출진이 연극을 준비할 때 유의할 점이다.

2 / 간추리고 쓰고

(1) 요약하며 읽기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38~40

핵심개념 1 내용 / 목적, 성격, 중요도, 분량
핵심개념 2 중심 / 세부, 상위 개념, 재구성
핵심개념 3 설명 대상 / 주장, 근거 / 줄거리, 시간, 공간 / 목표, 생각 그물
핵심개념 4 목적 / 목적, 달라짐
핵심개념 5 다른 / 얼음덩어리, 대륙, 없다, 따뜻, 펭귄, 북극곰 / 냉동 창고
핵심개념 6 연구 / 자원, 지구 환경 변화 / 정부
핵심개념 7 문둥병, 스님, 손가락, 오봉산
핵심개념 8 생각 그물 / 생산, 분배, 소비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41~45

01 ④ 02 ③ 03 ④ 04 ② 05 ③ 06 ④ 07 ② 08 북극곰이 북극에 살게 된 까닭은 북극 주변의 육지에 살던 곰이 유빙을 타고 북극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09 (라)와 (마) 10 ② 11 ④ 12 극지는 인류에게 필요한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극지는 지구 환경 변화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13 ② 14 ⑤ 15 ③ 16 (다) 문단 17 ③ 18 ③ 19 손가락 20 ③ 21 ③ 22 ④ 23 ② 24 (마) 25 ⑤

01 이 글은 설명문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글이다.

02 펭귄은 남극 주변에 살던 조류가 진화한 것으로, 주로 남극에 산다.

03 ㉣은 내용이 병렬적으로 연결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나머지는 모두 이 글의 구조가 대조의 방식으로 전개됨을 알려 주는 부분이다.

04 중심 문장이 없는 문단은 요약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중심 내용을 찾아서 중심 문장을 직접 만들 수 있다.

05 '빙산의 일각'이란 '어떤 일의 대부분이 숨겨져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에 많이 쓰이므로 ③에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

06 〈보기〉의 상황에서는 북극에 대해 다룬 문단을 선택해서 요약해야 한다. (다), (마), (사)는 북극에 대해 다룬 문단이다.

07 이 글은 남극과 북극의 서로 다른 특징을 대조의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09 남극과 북극의 기후적 특징을 다루고 있는 것은 (라)

와 (마) 문단이다.

10 읽는 이의 목적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요약한 내용도 다를 수 있다.

11 이 글은 남극과 북극의 공통점을 다룬 글이 아니라, 정부가 극지 연구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13 (가)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북극해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14 이 글은 극지의 특징과 중요성을 먼저 밝히고, 마지막에 정부가 극지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5 이 글 전체의 요약문을 만들 때에 ③은 중요도가 낮으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문장이다.

16 (다)에서는 지구의 환경 변화를 연구하는 데에 극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다) 문단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17 ㄷ. 남편이 문둥병에 걸린 이유는 나오지 않는다. ㅁ. 스님은 아내에게 속임수를 쓴 적이 없다. 아내는 스님의 말을 듣고 오봉산을 찾아다니다가, 자신의 손가락이 오봉산임을 깨닫게 된다.

18 이 글은 이야기의 구성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9 자신의 손가락이 오봉산임을 깨달은 아내는 자신의 다섯 손가락에 불을 붙이고 남편이 있는 암자에 찾아간다.

20 ㉢에서 부인은 오봉산을 찾지 못하자, 남편과 함께 죽을 각오로 남편을 찾아가고 있었다. 따라서 부인이 혼자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돌아갔다는 요약은 잘못된 것이다.

21 이 글은 사회 교과서의 일부이다. 경제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시간과 공간의 순서로 내용이 전개되지 않는다.

22 (라)를 보면, 세탁소에서 옷을 세탁해 주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생산이라고 하였다.

23 진한 글자, 도식, 표 등 교과서의 특성을 활용하여 중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요약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4 (마) 문단은 경제 주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다.

25 교과서 내용을 생각 그물로 요약하면 한 편의 완결된 글로 요약할 때보다 시각적 효과를 거두어 이해와 기억, 구조 파악에 도움이 된다.

(2) 통일성 있는 글 쓰기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46~47

핵심개념 1 주제, 긴밀 / 통일성
핵심개념 2 주제, 주제, 중심 문장
핵심개념 3 계획하기, 목적, 장점 / 도움, 방법, 성공 / 조직, 종이 신문 읽기 / 주제
핵심개념 4 주제 / 신문지, 주제 / 통일성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48~51

01 ⑤ **02** ② **03** ⑤ **04** ② **05** '중간 3'의 '종이 신문의 독자 수 감소' 부분 **06** ① **07** ② **08** 종이 신문 읽기와 인터넷 신문 읽기의 차이점, 학교에서 아침 신문 읽기를 하는 사례 등 **09** ⑤ **10** ④ **11** ② **12**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신뢰를 주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13** ① **14** 게다가, 된다. **15** ④ **16** ③ **17** ③ **18** ② **19** ⑤

01 (가)는 '계획하기' 단계로 글을 쓰기 전에 글의 주제,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 등을 정한다. 글에 들어갈 내용을 선정하는 일은 (나)의 '내용 선정하기' 단계에서 한다.

02 (나)는 내용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자료 중에서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골라야 한다.

03 ㉤은 신문의 인쇄 과정에 대한 자료로, 종이 신문의 장점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04 (다)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로 내용을 선정한 후 통일성을 고려해 개요를 작성한다.

05 '중간 3'의 '종이 신문의 독자 수 감소'는 '종이 신문을 읽자.'라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06 '처음'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종이 신문을 읽지 않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예상 독자인 청소년들에게 문제 상황에 대해 공감하도록 할 수 있다.

07 ⓑ에는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에 대해서 써야 한다. 그러나 ②는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과는 거리가 멀다.

09 이 글은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구조가 아니라, 신문을 읽지 않는 문제 상황을 밝히고, 신문의 장점을 알려 독자들에게 종이 신문을 읽자고 주장하는 글이다.

10 글을 쓰다가 통일성에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을 점검하여 통일성 있게 고쳐 쓰면 된다.

11 이 글은 종이 신문의 장점을 근거로 들어 종이 신문을 읽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13 이 글은 처음 부분에 청소년들이 신문을 잘 읽지 않

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4 (나)의 마지막 문장은 신문 읽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신문지가 우리에게 주는 도움을 다루었기 때문에 주제와 거리가 멀다.

15 (마)에서 '신문 읽기의 고수들도 모든 기사를 다 읽기보다는 자신의 관심과 상황에 맞게 읽기를 추천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기사를 꼼꼼히 다 볼 필요는 없다.

16 ③은 통일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다.

17 ㄷ. 농구가 성적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내용은 없다. ㄹ. 농구의 장점은 나와 있지만, 단점을 설명한 부분은 없다.

18 (나)는 농구의 기본적인 경기 방식을 설명한 부분으로, 농구의 재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 글의 주제에 부합하는 문단이다. 따라서 통일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19 통일성 있는 글을 읽으면 독자는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 것은 통일성이 아니라, 타당성의 문제이다.

대단원 최종실전 1회

pp. 52~57

01 ④ **02** ①, ④ **03** ⑤ **04**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 이번에 밝혀진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다. / 이번 보고서에는 빙산의 일각만 나온 것이다. / 이 기사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다. 등 **05** ② **06** ② **07** ⑤ **08** ① **09** ㉣, 부인이 안타까워서 손가락을 짝 펴고 해를 잡아당기려다가 자기 손가락 다섯 개가 오봉산임을 깨닫는다. **10** ⑤ **11** ④ **12** ⑤ **13**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등 **14** ⑤ **15** ③ **16** ㉠, ㉡ **17** ③ **18** ③ **19** ⓐ는 주제와 관련이 없다. **20** ① **21** ⑤ **22** ① **23** ④ **24** ①, ② **25** ③ **26** (나) – (가) – (다) – (바) – (마) – (라) **27** ② **28** ④ **29** ① **30** ㉮가 잘못된 부분이다. 내용을 선정할 때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31** ④

01 (나)는 논설문이므로 글쓴이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요약하기에 적절한 것은 이야기 글이다.

02 (가)를 읽는 목적이 다르다면 글에서 목적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여 요약할 수 있다. (나)는 논설문이므로 글쓴이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 글의 구조를 고려해 연결하여 요약할 수 있다.

03 (나)에서 '극지 연구와 같은 기초 분야에 민간의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였으므로, 극지 연구에 민간 부분의 투자가 활발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5 요약할 때에는 먼저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는다. 중심 문장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 문단이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표시한 후, 표시한 것과 관련된 주요 단어와 내용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본다. 그런 다음 표시한 부분과 밑줄 친 내용을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적어 본다.

06 ㉡은 당시 사람들이 문둥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쓴 것이므로, 이야기의 전개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아니다.

07 (가)에서 부인은 남편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부인은 남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오봉산을 찾아다니는 고생을 하고 결국 오봉산을 찾게 되었다.

08 (가)는 이야기 글이므로, 이야기 전개 과정의 논리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기업'은 가계로부터 제공받은 노동과 자본 등을 이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 주체이다.

11 (나)는 사회 교과서이며, 교과서는 학습 목표, 대단원과 소단원 제목, 진한 글자, 표와 도식 등을 고려하여 글의 전체 흐름에 맞게 요약해야 한다. (나)는 경제 활동의 종류, 경제 활동의 주체 등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서술의 인과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12 글을 요약하며 읽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였으므로, 요약하며 글을 읽으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13

채점 기준	배점
'이해'나 '기억'을 포함하여 형식에 맞게 썼을 때	4
제시어를 포함하지 않았거나 형식에 맞게 쓰지 않았을 때	2

14 (가) '계획하기'는 예상 독자와 글의 주제, 글을 쓰는 목적, 글에서 다룰 내용 등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글에서 삭제할 부분을 고려하는 것은 계획하기 이후의 단계에 해당한다.

15 (나)는 내용 선정하기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글에 담을 내용을 여러 매체를 통해 수집하고 주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16 ㉠은 종이 신문의 장점을 다루고 있고, ㉡은 신문이 수학과 과학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17 (다)는 글의 개요를 짜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이다. ③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다.

18 신문 기사를 읽을 때는 모든 기사를 다 읽기보다는 자신의 관심과 상황에 맞게 읽는 것이 좋다.

19 ⓐ는 '종이 신문을 읽자.'라는 주제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문 읽기의 성공적인 사례'라는 상위 항목과도 관련이 없다.

채점 기준	배점
ⓐ의 문제점을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을 때	3
ⓐ의 문제점을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쓰지 않았을 때	1

20 (가)~(바)는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는 논설문이다.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은 논설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다.

21 (가)는 인터넷 신문과 종이 신문을 비교하여 종이 신문의 장점을 밝히고 있다.

22 (가)~(바)의 주제는 '종이 신문을 읽자.'는 것인데, ㉠은 종이 신문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예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23 (가)에서는 인터넷 신문과 종이 신문을 비교하여, 종이 신문은 인터넷 신문에 비해 균형 잡힌 정보를 전해 준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종이 신문이 인터넷 신문에 비해서 읽기가 편리하다고는 하지 않았다.

24 신문을 읽으면 지식이 풍부해지고,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사회를 보는 눈이 생기고, 시대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25 (마)에서는 종이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종이 신문을 읽을 때에는 신문의 처음과 끝을 꼼꼼히 읽을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관심 분야와 상황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읽는 것이 좋다.

27 (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얻는 데는 신문만 한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을 통해 이 내용이 '종이 신문의 특성'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8 (사)는 글의 구조를 보여 주는 글의 개요이다. 개요를 작성한 후에 글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글을 쓴 후에도 고칠 부분이 있으면 개요로 돌아가 수정한 후 글을 다시 써 볼 수 있다.

29 (사)의 개요를 보고 흐름상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나 주제에 부합하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것들을 삭제해야 한다. 글을 쓸 때는 예상 독자를 염두에 두어야 하므로, 독자의 수준에 맞는 내용은 삭제의 대상이 아니다.

30

채점 기준	배점
내용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을 포함해 썼을 때	4
내용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을 쓰지 않았을 때	2

31 한 편의 글을 완성한 후에는 글이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는지, 문단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는지, 예상 독자를 고려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 고쳐 쓸 수 있다. 그러나 흥미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가는 고쳐 쓰기를 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대단원 최종실전 2회

pp. 58~64

01 ① **02** ③ **03** ② **04** ③ **05** (나), (라), (바) **06** ① **07** ③ **08** ④ **09** ⑤ **10** ③ **11** ② **12** ④ **13** ⑤ **14** ⑤ **15** 남편에 대한 부인의 지극한 사랑 / 남편의 병을 고치려는 부인의 희생적인 사랑 **16** ④ **17** ③ **18** ③ **19** ⑤ **20** ④ **21** '중간 3'의 '종이 신문의 독자 수 감소'는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22** ⑤ **23** ③ **24** ⑤ **25** ④ **26** ② **27** 이 글의 중간에 '게다가 종이 ~ 도움이 된다.'라고 한 부분은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글은 통일성에 어긋난다. **28** ⑤ **29** ④ **30** ② **31** ④ **32** ③ **33** 통일성 있는 글을 쓰면 독자는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01 이 글은 남극과 북극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이다. 설명문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02 이 글은 남극과 북극의 특징을 대조하여 내용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 ③이 가장 적절하다.

03 (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설명할 대상에 대해 소개하는 글의 처음 부분이다.

04 이 글은 남극과 북극의 지역적, 기후적, 생태적 특징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① 인과 ② 정의 ④ 분석 ⑤ 분류

05 남극의 특징을 설명하는 문단들을 고른다.

06 ㉠은 남극과 북극 중 어디가 더 추운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07 (마)에서 북극은 여름에 영상 10℃ 정도로 비교적 따뜻하며, 원주민인 이누이트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북극은 원주민이 살 수 있을 만큼 비교적 따뜻함을 알 수 있다.

08 이 글은 극지 연구가 지니는 의미를 밝혀, 극지 연구 분야에 정부의 장기적 투자가 필요함을 주장하는 글이다.

09 (가)에서 '옛 소련 말기인 1987년에 무르만스크 선언을 계기로 러시아 북극권의 개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였다.

10 ㉢은 (나)의 중심 내용인 '극지는 인류에게 필요한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의 뒷받침 문장이므로 요약문에 포함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11 요약은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담는 것이 아니라, 덜 중요한 것은 삭제하고 핵심 내용만을 담아서 간략하게 줄이는 것이다.

12 이 글은 극지의 중요성을 근거로 제시하여 정부를 중심으로 극지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남극과 북극의 가치를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고 있지는 않다.

13 이와 같은 이야기 글은 인물, 사건, 배경, 문제의 해결 과정 등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단 간의 논리적 전개는 주장하는 글에서 살펴야 하는 요소이다.

14 이 글은 민담이므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구술적 성격이 남아 있다. 그러나 교훈이 잘 드러나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16 이야기 글은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요약하거나 사건의 전개 과정에 따라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 순서에 따라 요약하거나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으로 정리해 요약할 수도 있다.

17 (가)는 계획하기 단계이다. 통일성 있는 글을 쓰려면 예상 독자, 글의 주제와 글을 쓰는 목적,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 등을 고려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통일성 있는 글을 쓰는 것과 글의 분량은 관계가 없다.

18 글을 쓰기 위한 자료를 선정할 때는 책, 신문, 인터넷, 방송, 백과사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하나의 매체에서 하나의 자료만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 ㉤은 '종이 신문을 읽자.'라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20 (다)는 어떤 내용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이다. ④의 계획한 내용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글을 쓰는 단계는 '표현하기'이다.

21

채점 기준	배점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을 직접 인용해 형식에 맞게 썼을 때	2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부분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을 때	1

22 (다)의 ⓐ는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을 밝히는 부분이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신문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⑤는 신문을 읽어서 얻는 효과가 아니라, 신문을 종이로써 사용할 때의 효과를 말하고 있다.

23 통일성 있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주제가 하나여야 하며 글쓰기 과정에서 글의 세부 내용은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관련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한 편의 글에 다수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4 '종이 신문을 읽자.'라는 주제를 고려할 때, 인터넷으로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사의 상황에 대한 자료는 주제를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5 '신문 읽기의 성공적인 사례'는 '종이 신문을 읽자.'라는 글쓴이의 주장과 관계가 깊은 내용이다. 따라서 주제와 관계가 없지만 단순히 흥미 유발을 위해 제시한 것은 아니다.

26 이 글은 설득에 목적이 있는 논설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한 글이므로 ②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7

채점 기준	배점
통일성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 형식에 맞게 썼을 때	3
통일성에 어긋난 부분을 찾지 못했을 때	1

28 (다)의 빈칸은 신문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 앞의 문단에서 첫 번째 도움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어서 두 번째 도움이 되는 점을 서술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글의 중간 부분으로 글쓴이의 주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아니다.

29 통일성은 글의 주제가 하나이며, 글의 세부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관련을 맺는 성질이다. 따라서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눈높이에 맞게 글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만 통일성 있는 글을 쓰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30 (나)의 인터넷 신문과 종이 신문을 비교한 내용을 참고하여 친구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31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각 문단에서 세부 내용이 문단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도록 써야 하며, 문단 간의 통일성을 살펴 글 전체에서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써야 한다.

32 '통일성'은 글의 주제가 하나이며, 글의 세부 내용이 주제와 긴밀하게 관련을 맺는 성질이다. 따라서 형식을 통일되게 고쳐야 한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33

채점 기준	배점
독자의 관점에서 형식에 맞게 썼을 때	3
독자의 관점에서 쓰지 않았을 때	1

3 / 언어의 세계

(1) 언어의 본질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66~67

핵심개념 1 의사소통 / 정보, 관계
핵심개념 2 필연적, 우연히, 다양하다
핵심개념 3 사회적 약속, 의사소통
핵심개념 4 시간, 나모, 어리석다, 온, 즈믄
핵심개념 5 새로운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68~71

01 ② 02 ⑤ 03 ③ 04 '나무'의 말소리를 '다다'라고 바꾸어 부르면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5 ① 06 ① 07 ② 08 ①, ②, ⑤ 09 ⑤ 10 ④ 11 ③ 12 ① 13 ② 14 ⑤ 15 ④ 16 ② 17 '밥'을 활용하여 '쌀밥, 보리밥, 주먹밥' 등의 여러 단어를 만들어 쓰는 것과 같이 언어는 기존의 언어를 활용하여 무한하게 만들어 쓸 수 있다. 18 ② 19 ③ 20 ㉠ 의미(내용), ㉡ 형식(말소리) 21 ④ 22 ④ 23 ④

01 이 대화에서 학생들은 서로의 생각을 언어를 통해 주고받고 있다. 이를 통해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2 '나무'는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일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 형식이다. 언어는 말소리와 문자로 구성되므로, 소리를 내는 것과 상관없이 문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03 ㉡은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 간의 결합 관계에 대한 의문이다.

04 다운이는 사회적 약속으로서의 언어 형식인 '나무'를 임의대로 '다다'로 바꾸어 사용하고자 하나, 언어의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어렵다.

05 '나모'라는 말소리가 '나무'로 바뀐 것이다.

06 (가)의 '남자'와 (나)의 '닉'은 언어의 형식과 내용 사이의 결합이 자의적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형식을 마음대로 바꾸어 쓰고자 한다. 이는 언어의 사회성을 고려하지 않은 태도이다.

07 ㉠은 언어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개인적으로 바꿀 수 없음에 대한 의문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 있으므로 적절한 것은 ②이다.

08 전 세계적으로 '개'를 부르는 다른 말이 있다는 점을 통해 언어의 자의성을, '개'를 '개'라고 부르기로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것이라는 점을 통해 언어의 사회성을, 언어도 법처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언어의 역사성을 알 수 있다.

09 ㉡은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한 사회 안에서 언어는 모든 사람이 약속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⑤가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 있다.

10 ⓑ와 ⓔ는 모두 사회적 약속인 '침대'와 '펜'을 개인이 임의대로 바꾸어 쓴 말이다.

11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리나 의미가 변하기도 하고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 한다. 기존의 단어로 새로운 문장을 무한히 만들어 쓸 수 있는 특성은 언어의 창조성이라 한다.

12 언어의 내용과 형식의 결합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다. 이에 따라 동음이의어나 방언이 발생하여 다른 대상을 같게 소리 내거나 같은 대상을 다르게 소리 내는 경우가 있다.

13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짜장면'을 표준어로 인정하기로 약속을 바꾼 사례이므로 언어의 역사성이 드러난다.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전에는 없던 말이 새로 생겨난 사례이므로 언어의 역사성을 알 수 있다.

14 (가)는 '짜장면'이 표준어로 인정받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특정 단어가 표준어와 다른 소리로 많이 발음됨에 따라 사람들이 함께 약속하여 그 발음과 표기 형태를 표준어로 인정한 사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짱'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것에서 언젠가는 '얼짱'도 표준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짜장면'을 비롯한 39개의 단어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이를 사전에 반영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약속하여 그 발음과 표기 형태를 표준어로 인정한 사례이므로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

16 ㉡은 예전에 없었던 말이 새로 생겨난 예이다. 새로운 문물의 도입에 따라 외래어가 들어와 국어로 정착하는 것은 새로운 언어의 생성에 해당한다.

17 ㉢과 같이 기존의 단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점은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된다.

18 하나의 단어가 그 사회에서 통용되기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언어의 형식에 개입하는 것은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언어의 사회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19 ㉠은 언어의 의미와 형식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언어의 자의성과, ㉡은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라는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

20 '나모'가 '나무'로 쓰이는 것은 언어의 변화 중 소리의 변화에 해당한다. 같은 대상에 대하여 다른 말소리로 소통하게 된 예이다.

21 언어의 창조성은 이미 있는 단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언어의 본질이다. '김'과 '밥'을 합쳐서 '김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언어의 창조성의 예이다.

22 미래가 사극을 보면서 산을 의미하는 '뫼'와 강을 의미하는 '가람'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 단어들이 현재에는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언어가 과거에 쓰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 있다.

23 '하늘'과 '구름'을 사용하여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단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된 예이다.

(2) 단어의 갈래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 72

핵심개념 1 공통된 성질 / 형태, 기능, 의미
핵심개념 2 체언, 이름, 대명사, 순서 / 수식언, 체언, 부사 / 관계언, 조사 / 독립언, 감탄사 / 용언, 움직임, 형용사
핵심개념 3 역할, 기본형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73~79

01 ③ **02** ④ **03** ⑤ **04** ㉠ 은행잎, ㉡ 미래, ㉢ 은행잎 **05** ③ **06** ③ **07** ③ **08** 수사 **09** ⑤ **10** ③ **11** ③ **12** ② **13** ㉠은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이고, ㉡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14** ④ **15** ③ **16** ④ **17** ④ **18** ⑤ **19** ③ **20** ② **21** 형용사, 부사 **22** ① **23** ① **24** ① **25** 밑줄 친 단어는 조사이며, 체언인 '하늘'과 결합하여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26** 도 **27** ⑤ **28** ㉠ 우아, 아 / ㉡ 얘, 야 / ㉢ 응, 그래 **29** ① **30** ① **31** ④ **32** ⑤ **33** ② **34** 하늘에서 내리는 약 **35** ③ **36** ⑤ **37** ③ **38** ② **39** ⑤ **40** ④ **41** ⑤ **42** ③ **43** ② **44** ③ **45** ④ **46** ⑤ **47** ④ **48** ④ **49** ① **50** 형용사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해라'는 '행복하기를 바란다'와 같이 고쳐 써야 한다. **51** ③ **52** ③ **53** ② **54** ④

01 문장의 종류는 서술어에 어떤 종결 어미가 결합하느냐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뉜다. 따라서 단어가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는 요소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형태를 기준으로 단어를 분류하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와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로 나눌 수 있다. '나무, 하나, 께서, 를, 으악, 이순신, 자유'는 불변어이고, '푸르다, 크다, 바라보다'는 가변어이다.

03 '밧줄'은 명사, '셋째'는 수사, '당신'은 대명사이며, 모두 체언에 속하고 문장에서 주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04 ㉠~㉢은 모두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나'는 말하는 사람이 자기를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그것'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05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인 체언이며, 문장의 다른 성분과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의 품사는 감탄사이다.

06 ㉠~㉤은 모두 명사이고, 명사는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와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로 나눌 수 있다. ㉢은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며, 나머지는 모두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07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는 '우리'이며,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는 '그곳'이나 '거기'이다.

08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이며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09 ㉤은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쓰는 대명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이다.

10 ㉮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 지시 관형사이다. ③의 '저'는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시 관형사이다.

11 ㉯는 동사이며,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① 조사, ② 형용사, ④ 수식언, ⑤ 체언

12 〈보기〉는 형용사에 대한 설명이며, '맛있다'와 '좋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①, ③, ④는 모두 동사이며, ⑤의 '건너다'는 동사, '밭이었다'는 명사 '밭'과 서술격 조사 '이다'의 결합이다.

13 관형사는 수식언으로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한다. 수사는 체언의 하나로 조사와 결합하여 주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인다.

14 ⓐ에는 동사, ⓑ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한다. '섞다, 흔들다, 비비다, 만들다, 요리하다'는 동사이고, '차지다, 까맣다, 쫄깃하다, 달콤하다, 짭짤하다'는 형용사이다.

15 '떠다닌다'는 동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이다.

16 '받다'는 동사이며, 동사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의 어미와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차지하다'는 명령형 '차지하라'나 청유형 '차지하자'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동사이며,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이다.

17 '매우, 모두'는 부사이며, '여러, 헌'은 관형사이다. 부사와 관형사는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수식언이다.

18 '몇'은 뒤에 오는 말과 관련된, 그리 많지 않은 얼마만큼의 수를 막연하게 이르는 관형사이다. ① 명사, ② 관형사, ③ 부사, ④ 관형사

19 '새'는 관형사로 형태 변화가 없는 불변어이며, '새로운'은 형용사 '새롭다'의 활용형으로 가변어이다.

20 ㉡은 뒤에 오는 형용사 '다른'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 대명사, ㉢ 형용사, ㉣ 관형사, ㉤ 명사

21 부사는 수식언의 하나로 불변어이며,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다른 부사를 수식하거나 관형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도 한다.

22 '빠르게'는 기본형이 '빠르다'인 형용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사이다.

23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품사는 조사이며, 조사는 주로 체언과 결합하여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준다.

24 '께서', '도'와 '아'는 조사, '아야'는 감탄사이다. 조사와 감탄사는 모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25 조사는 주로 체언과 결합하여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품사이다.

26 보조사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의미를 더해 준다.

27 '아빠'는 명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감탄사이다.

28 〈보기〉의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감탄사이며, 감탄사는 느낌, 부름, 대답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29 '이야'는 감탄사이며, 감탄사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므로 생략해도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0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체언이다.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31 '한'은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① 하나, ② 셋, ③ 첫째, ⑤ 다섯째'가 수사이다.

32 '고맙습니다'는 '남이 베풀어 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고맙다'의 활용형이고, 나머지는 모두 동사이다.

33 이제(부사) / 어디(대명사) / 가서(가다 – 동사) / 토끼(명사) / 를(조사) / 잡지(잡다 – 동사)

34 '이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35 ㉢의 '하하'는 감탄할 때 내는 소리로 감탄사에 해당한다.

36 우리(대명사) / 가족(명사) / 세(관형사) / 명(명사) / 은(조사) / 모두(부사) / 노래(명사) / 를(조사) / 불렀다(부르다 – 동사)

37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동사와 형용사이다. ③의 '쫑긋'은 '세웁니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38 ②에서 관형사 '저'와 부사 '보슬보슬'이 모두 쓰였다. ① 무척, 많이(부사) ③ 너울너울(부사) ④ 어느, 한(관형사) ⑤ 세, 온갖(관형사)

39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하여 이르는 말인 대명사에 해당한다.

40 (가)는 명사, 대명사, 수사로 체언에 속하며, (나)는 관형사, 부사로 수식언에 속하고, (다)는 동사, 형용사로 용언에 속한다. 즉,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가)~(다)와 같이 단어들을 분류한 것이다.

41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인다.

42 '매우'는 '고팠구나'를 꾸며 주는 부사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43 '셋'은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것은 관형사, 부사와 같은 수식언이다.

44 '결국, 아주, 역시, 그냥'은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이며, '그런'은 명사인 '사람'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45 ④에는 관계언 '도, 부터'가 사용되었고, ①, ②, ③에는 관계언 '에'가, ⑤에는 관계언 '으로'가 사용되었다.

46 '나'는 사람의 이름을 대신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47 ④의 '아홉'은 명사 '마리'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사이다.

48 '고운'은 '곱다'의 활용형으로, '곱다'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49 '모든'은 명사 '어머니'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50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명령형, 청유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

51 〈보기〉의 '참'은 형용사 '좋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① 많이, ② 깨끗이, ④ 너무, ⑤ 제법'은 부사이다.

52 ③의 '헉'은 몹시 놀라거나 숨이 차서 숨을 순간적으로 멈추거나 들이마시는 소리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와, 이야, 네, 이봐'는 모두 감탄사이다.

53 ㉠에서 동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싣다, 보고, 올라, 웃어, 앉은'이다.

54 ④에는 '은'과 '로'라는 조사 두 개가 사용되었다. '① 은, 의, 이 / ② 에, 는, 이다 / ③ 은, 의, 을 / ⑤ 은, 의, 을'이 조사이다.

대단원 최종실전 1회

pp. 80~85

01 ① **02** ④ **03** ④ **04** 형식(말소리) **05** ⑤ **06** ㉮ 언어의 창조성, ㉯ 언어의 역사성, ㉰ 언어의 사회성 **07** ②, ⑤ **08** ③ **09** ⑤ **10** ② **11** ②, ⑤ **12** ② **13** ④ **14** ③ **15** ⑤ **16** ⑤ **17** ① **18** ③, ⑤ **19** ② **20** ⑤ **21** ④ **22** ② **23** ② **24** 담으면(담다), 먹지(먹다) **25** ② **26** ① **27** ③ **28** ④ **29** '행복하다'는 형용사이므로 명령형 어미인 '-세요'가 결합된 형태로 활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로 바꿔야 한다. **30** ② **31** ②

01 (가)의 남자는 임의대로 침대를 '사진'으로 바꿔 부르겠다는 것이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는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 있다.

02 (가)의 남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약속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마음대로 언어를 바꿔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가)의 남자를 통해 언어의 사회적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03 언어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언어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04 언어는 의미(내용)와 형식(말소리)이 결합된 형태로, '짜장면'으로 발음하는 것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자장면'의 형식(말소리)이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05 '짜장면'을 비롯한 39개 단어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는 것은 언어 사용자들이 이 단어들을 사회적 약속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06 기존의 단어를 이용해 새말을 만들어 내는 언어의 성질은 '언어의 창조성'이고, 기존의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형되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이다. 그리고 신조어가 낯설게 느껴지며 집단 간의 단절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언어가 사회적 약속이라는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

07 기존의 말을 활용하여 새말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이 있으며, 새말이 사람들 사이에 일반적인 소통의 수단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은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

08 〈보기〉에서 '나모'가 '나무'의 옛말이었다는 것은 언어의 소리가 변한 예이다. 이와 같은 언어 변화 양상을 보이는 예는 '바위'의 옛말이 '바회'였다는 ③이다.

09 '언어의 역사성'이란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는 것으로, 그 유형으로는 새로 생긴 말, 사라진 말, 소리나 의미가 변한 말이 있다.

10 닉이 새로 만든 단어인 '프린들'이 나무나 모자처럼 보통 단어가 되었다는 것은 '프린들'이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속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므로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 있다.

11 우리말로 된 길 이름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단어를 활용하여 단어와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다는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만든 말이 이전에는 없던 말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없던 말이 새로 생겨날 수 있다는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 있다.

12 ㉡은 단어와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다는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 있다. 따라서 단어를 모아서 또 다른 말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언어를 끊임없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13 '개'를 '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것이라는 설명은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 있다. 그리고 '개'를 부르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은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는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다.

14 인간이 이미 있는 단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 있다.

15 ㉠은 명사 '산'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며, ⑤의 '그'는 명사 '일'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① 명사, ② 부사, ③ 부사, ④ 형용사

16 '봤으면'은 '보-+-았-+-으면'의 구조로, 기본형은 동사 '보다'이다.

17 '그럼'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대답할 때 쓰는 감탄사이다.

18 '놓은'은 동사 '놓다'의 활용형이므로 수식언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는 수사이므로 수식언이 아니다.

19 '학교'는 명사, '빨리'는 부사, '모든'은 관형사, '어머나'는 감탄사이며 이들은 모두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반면에 '먹다'는 동사, '빠르게(빠르다), 높아서(높다), 다양한(다양하다)'는 모두 형용사이며 이들은 모두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로는 ②가 적절하다.

20 '우리, 그녀'는 모두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이다.

21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은 명령문이고,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은 청유문이다. 동사는 명령형과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형용사는 이와 같이 활용할 수 없다. '아름답다'는 형용사이며, 나머지는 모두 동사이다.

22 '첫, 한'은 각각 명사 '번째'와 '명'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① 열넷, ③ 첫째, 둘째, 셋째, ④ 하나, 둘, 셋, 넷, ⑤ 셋'은 수사이다.

23 〈보기〉의 단어들은 모두 명사이며, 이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교복, 한라산, 사탕'과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우정, 행복'으로 나눌 수 있다.

24 '달린다(달리다)'와 '난다(날다)'는 모두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말풍선 속 단어 중 '담으면(담다)'과 '먹지(먹다)'가 동사에 해당한다.

25 〈보기〉의 빈칸에는 명사 '학생'과 '옷'을 꾸며 주는 관형사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관형사는 체언의 앞에 위치하여 꾸며 줌으로써 체언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

26 〈보기〉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단어'는 조사 중 보조사를 의미한다. ①의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27 '나래야'는 명사 '나래'와 조사 '야'가 결합한 것일 뿐,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아니다.

28 가장(부사) / 큰(크다 – 형용사) / 별(명사) / 이(조사) / 보이는(보다 – 동사) / 우리(대명사) / 동네(명사)

29

채점 기준	배점
표현이 잘못된 이유와 바르게 고친 표현을 모두 썼을 때	4
표현이 잘못된 이유나 바르게 고친 표현 중 하나만 썼을 때	2

30 이 대화에서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로는 '우아'와 '아'가 사용되었다.

31 '그래'는 긍정하는 뜻으로 대답할 때 쓰는 감탄사이다.

대단원 최종실전 2회

pp. 86~92

01 ③ **02** ④ **03** ④ **04**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어 쓸 수 없다는 '언어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다. **05** ④ **06** ⑤ **07** ④ **08** ④ **09** ③ **10** ④ **11**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겨나거나 변하거나 사라지는 본질은 '언어의 역사성'이다. **12** ③ **13** ③ **14** ⑤ **15** ① **16** ② **17** ③ **18** ② **19** ㉠ 은행잎, ㉡ 수연, ㉢ 수연, ㉣ 학교 근처 공원 **20** ⑤ **21** ㉠은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며, ㉡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22** ⑤ **23** ② **24** ④ **25** ㉠의 '을'은 체언 뒤에 붙어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의 '만'과 ㉢의 '도'는 특별한 뜻을 더해 준다. **26** ⑤ **27** ② **28** ③ **29** 내(대명사), 생일(명사), 친구(명사), 너(대명사), 하나(수사) **30** ⑤ **31** ⑤ **32** ③ **33** ③ **34** ⑤

01 ㉠에 대해 '네가 그런 거야, 닉. 너와 나와 이 반에 있는 아이들과 이 학교와 이 마을과 이 주와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선생님의 대답을 참고할 때, ㉡에는 ③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2 모든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언어의 역사성'이 있으므로 나라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다.

03 ㉣은 법을 지키는 것처럼 언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언어의 사회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04 자넷이 '연필'을 '프린들'이라고 말하는 닉을 '바보 아냐?' 하는 눈빛으로 쳐다본 것은 닉이 언어의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배점
언어의 본질을 직접 언급하여 형식에 맞게 썼을 때	2
언어의 본질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을 때	1

05 '어미(母)'를 뜻하는 단어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ㄴ)과 '평지보다 높이 솟아 있는 땅의 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산'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ㄹ)은 모두 언어의 의미와 형식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언어의 자의성'의 예이다. ㄱ은 '언어의 역사성', ㄷ은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된 예이다.

06 〈보기〉의 '그'는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언어의 사회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07 〈보기〉는 언어의 의미(내용)와 형식(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 있다.

08 이 글의 남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른 것은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라는 '언어의 사회성'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09 〈보기〉에서 "언어의 내용은 그 단어가 가진 '뜻'을 말하며, 형식은 그 '뜻'을 나타내는 '말소리'나 '글자'를 말한다."라고 했으므로, ㉠은 언어의 '내용'을, ㉡은

언어의 '형식'을 가리킨다.

10 ㉢은 이 글의 남자가 개인의 마음대로 '침대'를 바꿔 부른 말이며, 이미 존재 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은 기존의 단어를 이용해 새로운 말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11 〈보기〉의 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있던 언어가 사라진 예이고, ㄴ은 소리가 변한 예이다.

채점 기준	배점
언어의 본질을 직접 언급하여 형식에 맞게 썼을 때	2
언어의 본질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을 때	1

12 '언어의 자의성'은 언어의 의미와 형식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으며,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는 우연히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순서대로 '자의적'과 '필연적'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3 '짜장면'은 새로 만든 말이 아니라 기존에 널리 쓰였지만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했던 말이다. 따라서 〈보기〉를 통해 당시의 언어 상황에 따라 새로 만든 말을 표준어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4 이미 있는 단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언어의 본질은 '언어의 창조성'이다. 이는 인간의 언어만이 가진 특징이다.

15 말소리를 마음대로 바꿔 부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16 단어는 문장에서의 역할(기능)에 따라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으로 분류할 수 있다.

17 단어를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와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로 나눌 수 있다. '어머나(감탄사), 부디(부사), 여러(관형사)'는 모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 '그녀, 공책, 아주, 모든, 신발, 셋, 손, 시나브로('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의미의 부사)'는 모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고, '맑다, 뛰다, 조그맣다, 놀다'는 모두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18 〈보기〉의 빈칸에는 체언이 들어갈 수 있으며, 체언은 문장에서 주어(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목적어(동작이나 상태의 대상) 등의 기능을 한다.

20 '하나'는 수사이고, '두, 세, 네, 한'은 모두 관형사이다.

21

채점 기준	배점
품사가 드러나고 의미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썼을 때	2
품사가 드러나지 않거나 의미를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았을 때	1

22 용언인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문장에서 주로 서술하는 기능을 하며, 문장에서 쓰일 때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하는 가변어이다. 동사는 명령형 어미나 청유형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반면, 형용사는 불가능하다. 또한 동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 '-는/ㄴ-'과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는 불가능하다.

23 '이'는 관형사이고, '열심히'는 부사이다. 관형사와 부사는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수식언이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 관형사는 체언을, 부사는 주로 용언, 부사어, 관형어, 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

24 ④에는 '가, 은, 도, 가'라는 조사 4개가 사용되었다. ① 께서, 에(2개) / ② 과, 을(2개) / ③ 이, 까지(2개) / ⑤ 의, 에(2개)

25 '을'은 '귤'이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한다는 뜻을,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더하는 기능을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의 역할을 구분해서 형식에 맞게 썼을 때	2
㉠~㉢의 역할을 구분해서 쓰지 않았을 때	1

26 ㉤은 '크다'의 활용형이며 형용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동사이다.

27 '너(대명사), 저(관형사), 산(명사), 너머(명사), 에(조사), 가(가다 – 동사), 본(보다 – 동사), 일(명사), 있니(있다 – 형용사)'이므로, 명사는 총 3개이다.

28 '그럼(감탄사), 참외(명사), 맛(명사), 도(조사), 좋지만(좋다 – 형용사), 수박(명사), 맛(명사), 은(조사), 더(부사), 좋다(형용사)'이므로, ㉡에는 관형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30 '이다 01'은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동사이고, '이다 03'은 체언 뒤에 붙어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조사이다.

31 '도와준(도와주다)'과 '잃어버린(잃어버리다)'은 모두 동사이다. ① 할(하다 – 동사), 아자(감탄사) / ② 예쁘게(예쁘다 – 형용사), 쓰고(쓰다 – 동사) / ③ 새(관형사), 참(부사) / ④ 열(관형사), 둘(수사)

32 〈보기〉의 '저것'은 대명사이고, ③의 '그'는 관형사이다. '무엇, 어디, 그분, 당신'은 모두 대상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33 ㉠은 감탄사로,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생략되어도 문장이 성립한다.

34 ㉡은 수사이지만, ⑤의 '백'은 명사 '번째'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① 아홉, ② 넷, ③ 첫째, ④ 다섯, 둘, 셋'이 수사이다.

4 / 다양한 의사소통

(1) 토의하기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94~95

핵심개념 1 공동, 해결 방안
핵심개념 2 공동 / 역할, 근거 / 의견, 비용, 오염, 육류, 식단, 배식, 식습관 일지, 자율, 홍보, 식단 공모전 / 해결안 / 방안
핵심개념 3 통계, 증가 / 점검표, 식습관 / 비용 / 자율 배식 / 학교
핵심개념 4 순서, 정리 / 자료, 근거, 존중, 실천
핵심개념 5 경청, 수용, 예의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96~99

01 ② 02 ③ 03 자료의 출처를 밝힌다. 04 ② 05 ㉠ 쓰레기 처리 비용, ㉡ 환경 오염 06 ② 07 ③ 08 ③ 09 ① 10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단을 짜자. / 학생들 스스로 식단을 짜도록 하자. 11 ③ 12 ③ 13 ⑤ 14 ② 15 ㉠은 개인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지만, ㉡은 학교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다. 16 ⑤ 17 ④ 18 ② 19 ⑤ 20 우리가 짠 식단이 실제로 급식에 반영된다면 학생들이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21 ①

01 이 글은 토의의 일부로, '우리 학교 급식 시간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02 토의를 준비할 때는 먼저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후, 의견 및 근거 제시에 필요한 자료만 골라 활용하도록 한다. 이때 조사한 자료를 전부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3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사용하면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며,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04 ⓑ는 상대방의 말에 대한 공감을 표현함으로써 강하게 긍정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비언어적 표현이다.

05 학교의 급식 음식물 쓰레기 증가에 따른 문제점으로 (다)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를, (라)에서는 환경 오염 발생을 들고 있다.

06 상대방의 말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은 토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바람직한 의견 제시이다. 토의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말이 끝난 후에 예의를 지키며 말해야 한다.

07 연재는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급식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연재는 학생에게, 지예와 연우는 학교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08 연재는 급식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학생들이 육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물의 종류에는 채소류와 육류뿐만 아니라 어패류, 곡류, 난류 등 다양한 것들이 있으므로 육류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음식을 모두 싫어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09 ㉠은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급식 음식물 쓰레기 발생 원인이라는 연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 비언어적 표현이다.

10 지예는 문제의 원인을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으로 식단을 짜는 데에서 찾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단을 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1 ㉡에서 사회자는 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있다.

12 토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말하기이다. 학급 좌석을 정하는 방법은 공동의 문제이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므로 토의의 주제로 적절하다. 찬반 의견으로 나눠지는 것은 토론의 주제로 삼기에 적절하다.

13 (라)에서 규빈이는 자율 배식의 종류를 늘리자는 연우의 의견에 일부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4 (마)에서 연우는 자신의 의견에 문제를 제기한 규빈이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 이 토의는 '원탁 토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탁 토의란 4~10명의 토의자가 둘러앉아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주어진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때 참가자들은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지 않아도 된다.

17 (가)에서 지예는 □□뉴스에서 본 공공 기관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행사가 성공적 결과가 있었다며 우리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행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18 토의 전에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이렇듯 토의는 주관이 개입되는 말하기이므로, 주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토의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9 (다)에서 지예는 규빈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어 규빈이의 의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다.

20 규빈이는 급식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식단 공모전'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시행된다면 학생들이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음식물을 함부로 버

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1 토의의 목적은 공동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즉, 바람직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므로 의견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 토의에서 제시된 개인 차원과 학교 차원의 해결 방안은 모두 의미가 있으며, 자율 배식을 늘리는 것과 공모전은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해결 방안은 실천 가능한 것들이다.

(2) 매체로 표현하기

한번 더 짚어보는 교과서 핵심

pp. 100~101

핵심개념 1 전자 우편 / 실시간 / 사생활 / 블로그, 주제별, 통계 / 댓글, 대화 / 실시간, 파일, 시·공간, 이름, 그림말, 줄임말
핵심개념 2 존중, 인신공격, 무시, 출처
핵심개념 3 시각, 청각 / 생생, 간결, 한눈
핵심개념 4 주제 / 계획서 / 대본 / 스토리보드 / 편집
핵심개념 5 차별 / 인권 / 시각적, 자막, 거리, 상상 / 청각적, 배경 음악, 대사

우리학교 필수기출

pp. 102~105

01 ⑤ **02** ① **03** ⑤ **04** ② **05**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에게 나의 소식을 전달할 때 /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에 방문하여 식사하고 느낀 점을 알릴 때 등 **06** ③ **07** ⑤ **08** ③ **09** ① **10** 청소년들의 비속어를 교정하기 위해서 **11** ⑤ **12** ④ **13** ④ **14** ⑤ **15** ③ **16** ⓐ 배경 음악, ⓑ 인권 **17** ③ **18** ① **19** ㉠ 시각적 요소, ㉡ 청각적 요소 **20** ④ **21** ㄹ → ㅁ → ㅂ → ㄱ → ㄴ → ㄷ

01 (가) 전자 우편, (나) 온라인 대화, (다) 누리 소통망[SNS]은 모두 인터넷 매체이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면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여러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02 (가)와 같은 전자 우편에서도 수신 확인이 가능하다.

03 (다)의 누리 소통망[SNS]은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글이므로, 신상 정보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게시하는 내용에 따로 제약이 있지는 않다.

04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글을 쓸 때에는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줄임말을 쓰는 경우가 있고, 비대면 상황에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그림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ㄴ. 격식에 맞춰 쓰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ㄷ. 실명을 밝히지 않고 글을 쓰는 경우도 있다.

05 (다)를 활용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 소식을 전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06 블로그와 인터넷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표준어뿐만 아니라 방언을 사용할 수 있다.

07 블로그 게시물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내용을 편집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08 블로그에는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게시한 글을 참고하여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친구의 비밀과 같은 사생활을 게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나)에서 '다람쥐'는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만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댓글과 답글을 달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10 (다)에서 프로그램 개발자 안○○은 또래 친구들이 욕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고, 욕을 쓰지 않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을 개발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11 (가)와 (나)는 유빈이가 만든 영상 〈왜 그럴까?〉로, 영상 매체에 해당한다. 영상 매체는 텔레비전, 비디오, 컴퓨터, 디브이디(DVD)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매체로, 뉴스, 광고, 드라마, 만화 영화 등이 해당되며 시청각적 요소를 모두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12 (가)는 성별에 따른 차별 문제를, (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를 유빈이의 시선에서 다루고 있다.

13 영상 언어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로 구성되는데, 시각적 요소로는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 자막, 색채 등이 있으며, 청각적 요소로는 배경 음악이나 효과음 등이 있다. 따라서 ㄱ, ㄹ, ㅁ은 시각적 요소에 해당하고, ㄴ과 ㄷ은 청각적 요소에 해당한다.

14 (가)에는 영상 언어가, 〈보기〉에는 문자 언어가 사용되었다. 영상 언어는 문자 언어에 비해 실제 대상의 모습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그 속에 담긴 뜻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영상 언어는 문자 언어보다 제작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15 이 영상은 일상 속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③에서도 피부색으로 차별받는 모습이 나타나므로 주제를 전달하기에 적절하다.

16 차별받고 인권이 무시되는 장면에서는 어두운 배경 음악을 사용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다.

17 (가)는 영상 대본이고, (나)는 스토리보드이다. 스토리보드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요한 순서대로가 아니라 촬영할 이야기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18 스토리보드는 주요 장면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므로 촬영할 장면과 순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19 카메라의 거리 및 각도, 자막 등은 시각적 요소에 해당하며, 배경 음악과 효과음 등은 청각적 요소에 해당한다.

20 연출, 작가, 편집 담당, 소품 담당 등 역할을 촬영 전에 미리 정해야 영상 제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21 영상을 제작할 때는 먼저 주제를 정한 후 역할, 제작 분량, 줄거리, 기획 의도 등을 담은 제작 계획서를 작성한다. 그 다음 대본과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이를 바탕으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거쳐 최종 평가한다.

대단원 최종실전 1회

pp. 106~111

01 ⑤ **02** 토의 주제 안내, 토의 순서 안내, 토의 진행 **03** 급식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04** ① **05** ③ **06** ③ **07** ⑤ **08** ① **09** ③ **10** 규빈이의 문제 제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연우는 이를 수용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다. **11** ③ **12** 연재, 스스로 '식습관 일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자. **13** ② **14** 지예는 뉴스 영상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15** ④ **16** 식단 공모전 **17** ② **18** ② **19** ④ **20** ①, ② **21** ③ **22** ⑤ **23**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 상대를 존중하지 않아 불쾌감을 줄 수 있다. **24** ① **25** 직접 만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말을 사용하여 표정이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 **26** ③ **27** ⓐ 사회적 차별을 받는 /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 인권을 존중하자 / 차별을 하지 말자 **28** ⑤ **29** ② **30** ④

01 토의를 할 때는 먼저 토의의 주제를 결정한 후, 이를 준비하며 토의 방식, 맡을 역할 등의 세부 사항들을 정한다.

03 ㉠은 우리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통계 자료로, 연재는 이를 근거로 우리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현황이 매우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을 활용한 이유를 '~ 위해서' 형식의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을 때	4
㉠을 활용한 이유를 적었으나, '~ 위해서' 형식의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쓰지 않았을 때	2

04 (다)에서 규빈이는 ㉡과 같이 동의를 나타내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연재의 말에 대한 공감한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05 (마)에서 연재는 육류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식습관 때문에 급식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 뿐,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06 (다)에서 규빈이는 신문 기사 내용을 근거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07 이 글은 원탁 토의로, 4~10명의 대등한 관계의 참가자가 둘러앉아 주어진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말하기 방식이다.

08 (가)에서는 급식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ㄴ)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나)와 (다)에서는 급식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09 (가)에서는 급식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의견이 제시된다. 즉, (가)와 (나)에서의 토의 내용이 다르므로, 사회자는 (가) 이후에 토의 내용을 중간 정리하고 다음에 논의할 사항을 안내해 주어야 한다.

10

채점 기준	배점
연우가 의견을 조정한 이유를 '타당성'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을 때	4
연우가 의견을 조정한 이유를 적었지만 '타당성'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았거나,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쓰지 않았을 때	2

11 규빈이는 전면 자율 배식이 이루어지면 배식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오히려 편식 습관을 키울 수도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③은 자율 배식의 효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연재는 '식습관 일지' 작성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3 학급비를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공동의 문제이므로 토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14

채점 기준	배점
(가)에서 지예가 활용한 자료를 밝히고, 그 효과에 대해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을 때	4
(가)에서 지예가 활용한 자료만을 밝혔거나, 그 효과만을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을 때	2

15 (다)에서 지예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토의 예절에서 어긋난 것이다.

16 (마)에서는 사회자가 앞서 나온 해결 방안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때 (가)에서 언급되었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행사 다음으로 '식단 공모전'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는 학생들 직접 식단을 구성해 본다는 내용과도 관련이 깊은 해결 방안이다.

17 이 토의는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ㄴ. 급식실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과 급식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ㄷ. 불량 식품을 먹어 건강이 나빠지는 것과 급식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8 (가)는 전자 우편, (나)는 온라인 대화, (다)는 블로그, (라)는 누리 소통망[SNS], (마)는 인터넷 게시판이다. 이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글을 쓰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때 전자 우편은 개인적인 내용을 전달할 때 유용하지만, 나머지 매체는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매체는 문자, 사진 등 시각 자료뿐 아니라 음악 등의 청각 자료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19 (라)의 누리 소통망[SNS]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어 사생활 노출의 우려가 있다.

20 실시간으로 의견을 수집하기에 적절한 매체는 온라인 대화이다. 그리고 주제별로 자료를 기록하기에 적절한 매체는 블로그이다.

21 (나)의 온라인 대화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과 동시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가)의 전자 우편은 실시간 전달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22 다른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는 모두 저작권이 있는 것들이므로 가져오기 전에 반드시 블로그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출처를 밝혀야 한다.

23 (마)에서 다람쥐는 유빈이의 영상을 비하하는 내용의 답글을 남겼다. 이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은 표현으로 상대에게 불쾌감과 상처를 줄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마)에서 다람쥐가 쓴 댓글의 문제점을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을 때	3
(마)에서 다람쥐가 쓴 댓글의 문제점을 썼지만,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쓰지 않았을 때	1

24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이 다를 때에는 상대를 존중하며 적절한 근거를 들어 반박할 수 있다.

25 〈보기〉는 그림말이다. 이러한 그림말은 비대면 상황에서 표정이나 감정을 전달하고자 사용한다.

채점 기준	배점
인터넷 매체에서 그림말을 사용하게 된 계기와 그 효과를 〈조건〉에 맞게 썼을 때	4
인터넷 매체에서 그림말을 사용하게 된 계기와 그 효과를 밝혀 썼지만, 〈조건〉에 맞게 쓰지 않았을 때	2

26 (가)는 영상이므로, 여기에 사용된 언어는 영상 언어이다. 영상 언어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대상의 모습을 문자 언어보다 더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 전하고자 하는 바가 보다 간결하게 전달되어 의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27 (가)는 휠체어를 탄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몸이 불편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인권을 존중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와 ⓑ 모두 〈조건〉에 맞게 썼을 때	4
ⓐ와 ⓑ 중 한 가지만 〈조건〉에 맞게 썼을 때	2

28 (가)의 '장면 8'은 자막이 너무 길어서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주제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처럼 자막을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29 (나)는 스토리보드로, 영상 매체를 제작할 때 주요 장면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스토리보드는 영상 대본을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그 직후인 ㉡이 가장 적절하다. ㉠ 제작 계획서 작성, ㉢ 촬영하기, ㉣ 감상하기, ㉤ 평가하기

30 〈보기〉는 영상 대본, (나)는 스토리보드이다. 스토리보드는 주요 장면과 촬영 방법, 대사, 음악, 효과음, 자막 등의 요소를 기록해 촬영 및 편집의 방향을 공유하는데 유용하다.

대단원 최종실전 2회

pp. 112~118

01 ④ **02** 해결 방안 **03** ⑤ **04**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신뢰감을 준다. **05** ⑤ **06** ② **07** ④ **08**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며 잘못된 점을 고치다 보면 점차 음식물 쓰레기양도 줄어들 것이다. **09** ④ **10** 자신과 다른 의견도 열린 자세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1** ④ **12** ③ **13** ④ **14** 자신과 다른 의견도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5** ⑤ **16** ① **17** ⑤ **18** ③ **19** ③ **20** ① **21** 자신의 신상 정보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 **22** ②

23 장애인을 차별하는 현실을 비판한다. /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현실을 비판한다. **24** ①, ⑤ **25** ④ **26** 글보다 내용을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 전달하려는 의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27** ⑤ **28** ⑤ **29** ⑤ **30**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31** 인터넷 매체에서는 신속하게 표현하기 위해 줄임말이나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가 힘들어질 수 있으며, 우리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32** ⑤ **33** ④

01 ⓐ는 '토의 준비하기' 단계이다. ⓐ에서는 토의 방식과 역할을 정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토의에서 제시할 의견과 근거를 마련한다. 상대의 의견을 평가하는 것은 '토의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02 토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다.

03 '맞습니다'라는 언어적 표현에 담긴 공감의 뜻을 강하게 전하는 효과를 주는 비언어적 표현은 '고개를 끄덕이며'이다. ①과 ③은 말의 속도, 억양 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04 규빈이는 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자료의 출처를 밝히면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출처를 밝힌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을 때 얻는 효과를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을 때	2
출처를 밝힌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을 때 얻는 효과를 썼으나,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쓰지 않았을 때	1

05 (마)에서 연재는 학생들의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나머지 음식물을 버리게 하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편식하지 않고 올바른 식습관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06 ㄴ. 연재는 통계 자료를 영양사 선생님께 받았다고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ㅁ. 지예는 연재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음을 몸짓과 말로 함께 표현하여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07 토의의 목적은 상대를 설득하여 자신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함께 찾는 것이다. 따라서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되, 상대방이 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08 (나)에서 연재는 식습관 일지를 매일 기록하다보면 자신의 식습관을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게 되어 점차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연재가 제시한 근거를 '~보면 ~것이다.' 형식의 한 문장으로 썼을 때	2
연재가 제시한 근거를 썼으나, '~보면 ~것이다.' 형식으로 쓰지 않았을 때	1

09 (마)에서 규빈이는 연우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규빈이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연우의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평가이다.

10 (바)에서 연우는 (마)에서 규빈이가 제기한 문제들을 인정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토의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도 열린 자세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채점 기준	배점
토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바)에 나타난 연우의 태도를 참고하여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을 때	4
(바)에 나타난 연우의 태도를 참고하지 않았거나,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쓰지 않았을 때	2

11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가 반드시 좋은 자료인 것은 아니다. 전문적인 자료가 아니라도 주제와 관련되고 의견이나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12 토의의 목적은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 안에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결정하려면 토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과 그에 따른 규칙을 지켜야 한다.

13 식단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식단이 실제로 급식에 반영된다면 학생들이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효과는 (라)에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성공 사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 지예는 규빈이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반론을 펼치고 있다. 이는 토의 예절에 어긋난 행동이므로, 지예에게는 자신과 다른 의견도 끝까지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채점 기준	배점
(다)의 지예에게 필요한 태도를 제시된 형식에 맞춰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을 때	2
(다)의 지예에게 필요한 태도를 적었지만 제시된 형식을 지키지 않았거나,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쓰지 않았을 때	1

15 토의의 가장 큰 목적은 문제 해결이다. 따라서 토의에서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16 토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①은 토론 후 깨달은 점으로 볼 수 있다.

17 '식단 공모전'은 학생들이 스스로 짠 식단이 실제 급식에 반영된다면 학생들이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제안된 해결 방안으로, 식단 구성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18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는 대부분 비대면 상황이므로 감정을 전달하고자 그림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정을 표현할 때 그림말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 (가)는 전자 우편, (나)는 누리 소통망[SNS]이다. (가)는 수신인을 지정해야 하는 매체지만, (나)는 범위 설정에 따라 어떤 사람이든지 열람할 수 있으므로, (가)에 비해 불특정 다수와 정보를 공유한다는 특성이 있다.

20 (가)는 전자 우편이다. 전자 우편은 동시에 같은 내용을 지정한 사람들에게 보낼 때 활용할 수 있다.

21 누리 소통망[SNS]은 세계 곳곳의 불특정 다수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체이므로, 개인 정보를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2 (다)는 블로그이다. 블로그는 내용의 편집이 자유로우며, 글을 게시한 이후에 얼마든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23 삼촌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러 투표를 하러 갔으나 계단 밖에 없는 투표소 환경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24 자막, 삼촌 머리 위에 등장하는 물음표, 가장자리를 흐릿하게 처리하는 효과, 카메라의 거리 변화는 모두 시각적 요소이고, 대사(음성)는 청각적 요소이다.

25 (라)는 인권은 누구나 함께 지켜 나가야 할 모두의 소중한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영상이다.

26 영상 언어는 실제 대상의 모습을 문자 언어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문자 언어보다 간결하게 전달되어 그 속에 담긴 뜻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영상 언어의 장점을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을 때	4
영상 언어의 장점을 썼지만,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쓰지 않았을 때	2

27 촬영된 영상을 보고 배경 음악, 효과음을 삽입하는 것은 편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편집 담당의 역할이다. 음악·소품 담당은 영상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준비하거나 촬영에 필요한 소품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28 온라인상에서 언어폭력이 심각한 이유는 비대면 상황이자 익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소통하기 때문에 언어폭력이 심각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29 인터넷 매체를 활용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처럼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댓글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0 (나)에서 다람쥐는 유빈이의 작품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댓글을 달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31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글을 쓸 때에는 내용을 빠르게 전하기 위해 줄임말이나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채점 기준	배점
〈보기〉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와 문제점을 적은 두 문장을 '그러나'라는 접속어로 연결시켜 썼을 때	4
〈보기〉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와 문제점 중 한 가지만을 적었거나, 두 문장을 '그러나'라는 접속어로 연결시켜 쓰지 않았을 때	2

32 (라)의 '장면 2'에는 체육 선생님과 친구들이 주인공을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이 장면은 '나'의 상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시각적 효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3 블로그에 글을 쓰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며, 독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 쉽게 방문을 할 수 있으므로 독도의 가치를 알리는 데 효과적이다.

MEMO